

지역건축탐방 6 - 대구 · 구미 · 김천(상)

Visiting Regional Architecture / Taegu · Kumi · Kimchon

보수성과 대륙성 기후의 대표적인 도시로서의 대구와 근대화 공업도시의 상징인 구미, 교
통의 중심으로 옛날의 번성에 대한 향수를 간직한 김천을 묶어 영남권 내륙도시 - 안동, 상주의 북부지역과
경산, 하양, 영천의 학원도시지역도 일부 논의되지만 - 의 도시건축문화에 대한 지역성 탐색을 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도시인 대구는 지금까지 구여 정치권의 중심지, 소비도시, 아파트
사업의 본거지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야권의 대표도시로 바뀌었다. 또 IMF에 가장 큰 영향
을 받는 도시 중 하나로 지하철건설로 생활패턴에도 일부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역성에 대한 논의는 수년 전에 대구 건축지 1집에서 특집으로 다루어진 바 있고 또 가
협, 사협, 학회의 3단체가 상호 협조하여 각종 디자인 아카데미 및 지산 건축전 등의 행사를 통해 지역의
중요한 장소 - 약전골목, 동성로, 신천변 등 - 를 대상으로 그 역사적, 문화적, 도시 환경적 측면에서의 중
요한 의미로 인식하는 계기도 나름대로 많이 만들어 왔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다양한 논의의 결과에서 보
여진 것 같이 지역건축 및 도시에 대한 특성을 찾고 또는 가져야만 하는 것으로 대체적인 의견이 집약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이번 특집을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 스스로 지역 건축인으로서의 의
식을 새롭게 다지는 좋은 계기로 생각한다. 또 지역성의 구현을 위한 주체는 누구보다 지역건축인 스스로
의 과제로서 그 소재는 지역고유의 특성을 발견하고 찾아내어 현실점에 맞는 건축적 어휘, 재료적 취급과
함께 현대건축의 본질적 요소인 공간성, 장소성과 조화를 이루는 미래지향적 실체를 만드는 것이므로 우린
단순히 감상적, 감정적 논의가 아닌 하나의 논리나 규칙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현대의
보편화, 무 개성화 추세에 주목하여 단순한 지역성만으로는 한계를 가지는 것이 아닌 변증법적 관계로서의
세계화에 대한 기준도 동시에 탐구해야만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역성은 역사적, 문화적, 공간적 유산과 도시발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특성
의 결과일 수 있지만 우리의 장단점을 보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진지하게 해결해 나가는 능동적, 적
극적인 사고로서 대체해야 할 것이다. 생활패턴의 변화는 있겠으나 삶 그 자체의 정서는 크게 변하지 않을
듯 하므로 기존의 가치관을 장차 변화되어 가는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적용하는 지역성의 새로운 추구를
모색하는 계기로 삼고 싶다. < 이정호 / 편집디렉터 >

<상>	영남 중부권의 지역성과 도시경관 / 김한배(대구대 조경학과 교수) _____	068
	대구시민들의 전통구조물과 역사적 환경들 / 예명해(대구대 건축공학과 교수) _____	075
	대구건축의 지역성 탐구 / 권종욱(영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_____	085
	대구시민의식과 도시 / 하재명(경북대 건축공학과 교수) _____	090

<하>	구미 도시탐색 / 김익환(금오공대 건축공학과 교수)
	구미건축을 바라보면서 / 신현익(금오공대 건축공학과 교수)
	김천 - 작은 도시의 매력 / 김종영(계명대 건축공학과 교수)

좌담: 영남 내륙권도시 - 보수, 근대, 공업의 이미지

- 일시: 1998년 5월 13일 18:30~

- 장소: 대구광역시건축사회 세미나실